

2018년 9월 1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대 중국 관세 발효 앞두고 부진 커들러 위원장,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곧 발표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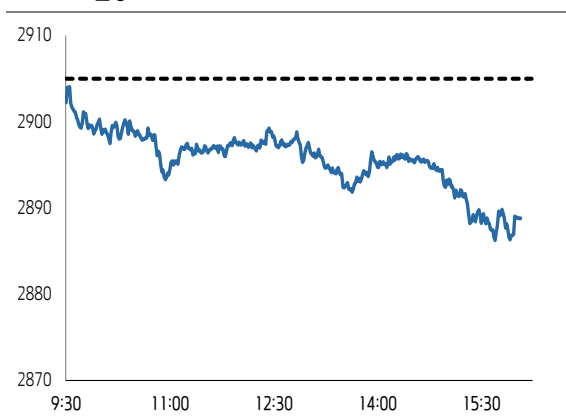
무역분쟁 우려 확산

미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장 마감 후 미·중 간의 무역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도 부담. 더불어 트럼프는 “철강 관세 부과 이후 산업의 변성과 일자리가 생겼다” 라고 주장. 한편 커들러 국가 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 곧 발표 할 것” 이라고 언급 하자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음(다우 -0.35%, 나스닥 -1.43%, S&P500 -0.56%, 러셀 2000 -1.06%)

미국의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증시는 관련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하는 등 예의주시 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철강산업이 번영을 누리고 있고,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라고 주장. 더불어 “관세 부과에도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언급. 그러나 시장에서는 US 스틸을 비롯한 철강 업체들의 주가는 지난 3 월 1 일 이후 36% 하락 했으며(8 월에만 약 20% 하락),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많은 투자은행들은 투자이견을 하향 조정 함. 더불어 미국과 세계 철강 가격 스프레드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 중

이와 함께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곧 발표 될 것이다” 라고 주장. 또한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문제라는 신호가 없다” 라고도 언급. 이와 함께 “중국은 세계 무역의 가장 큰 문제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책이다” 라고 주장. 주식시장은 커들러 위원장 발언 이후 중국에 대한 관세 발효가 임박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한 때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음. 대체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성 우려를 높인 모습. 한편, 중국에서는 전 재정부장관인 러우지웨이 정협 외사위원회 위원장이 16 일 한 포럼에서 “관세 보복과 더불어 중간재 수출을 중단해 서플라이체인에 타격을 줘야 한다” 라고 주장 하는 등 극단적인 내용도 나오는 등 양국간의 무역분쟁 우려감은 확산되는 경향. 특히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발효되면 27~28 일 있을 협상이 취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03.01	-0.66	홍콩항셱	26,932.85	-1.30
KOSDAQ	828.88	-0.72	영국	7,302.10	-0.03
DOW	26,062.12	-0.35	독일	12,096.41	-0.23
NASDAQ	7,895.79	-1.43	프랑스	5,348.87	-0.07
S&P 500	2,888.80	-0.56	스페인	9,404.60	+0.42
상하이종합	2,651.79	-1.11	그리스	682.75	+0.16
일본	23,094.67	휴장	이탈리아	21,111.40	+1.0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아마존 하락

애플(-2.66%)는 주말 아이폰 출하량이 예상과 부합되었으나 XR을 기다리기 때문에 XS 선주문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세를 이어갔다.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진 점도 부담이었다. 다만, 장 후반 대 중국 관세 발효에서 애플 제품들이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이 소폭 줄기도 했다. 아마존(-3.15%)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피하기 위해 회사를 나눌 것이라는 씨티의 분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넷플릭스(-3.90%)도 반독점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 했다.

마이크론(-1.63%)은 BMO캐피탈과 도이체방크가 메모리칩 가격 하락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낮추자 하락 했다. 이 여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4% 하락 했다. 트위터(-4.18%)는 플랫폼을 안정시키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페이스북(-1.07%), 알파벳(-1.54%) 등도 동반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22%	대형 가치주 ETF	+0.01%
에너지섹터 ETF	-0.91%	중형 가치주 ETF	-0.23%
소매업체 ETF	-1.02%	소형 가치주 ETF	-0.53%
금융섹터 ETF	-0.43%	배당주 ETF	-0.10%
기술섹터 ETF	-1.25%	변동성 ETF	+2.99%
소셜 미디어업체 ETF	-1.74%	대형 성장주 ETF	-1.08%
인터넷업체 ETF	-2.13%	중형 성장주 ETF	-1.42%
리츠업체 ETF	+0.57%	소형 성장주 ETF	-1.69%
주택건설업체 ETF	-0.69%	신흥국 고배당 ETF	-0.14%
바이오섹터 ETF	-1.32%	신흥국 저변동성 ETF	-0.69%
헬스케어 ETF	-0.36%	하이일드 ETF	-0.11%
곡물 ETF	-0.88%	물가연동채 ETF	+0.02%
반도체 ETF	-1.35%	Long/short ETF	+0.8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46.77	+0.16%	+2.23%	+2.34%
소재	372.70	+0.29%	+0.78%	+1.79%
산업재	662.08	+0.03%	+1.36%	+3.50%
경기소비재	916.92	-1.27%	-0.46%	+2.47%
필수소비재	562.39	+0.35%	+0.63%	-0.30%
헬스케어	1,075.33	-0.33%	+1.00%	+2.13%
금융	465.32	-0.36%	-0.63%	-0.29%
IT	1,293.67	-1.39%	+0.10%	+1.13%
통신	158.81	+0.16%	+2.56%	+0.66%
유틸리티	274.22	+0.30%	+0.09%	-0.35%
부동산	207.24	+0.49%	+0.11%	-0.8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정부 발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49% MSCI 신흥 지수도 0.91%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33 계약) 에도 불구하고 0.55pt 하락한 294.7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5.5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 마감 후 대 중국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이러한 관세 발효 조치가 강행 되면 중국은 당장 27~28 일 있을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등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국 전 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도 극단적으로 대 미 부품 수출 중단을 언급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엔화를 비롯한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변화가 이어졌다.

더불어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발효로 미국 기업들의 4 분기 이후 EPS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 동안 미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 상승폭이 컸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에 따른 실적 개선 및 자사주 매입 효과였다. 그러나 관세 발효로 인해 2019 년 S&P500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10% 감익 될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 증시는 향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이슈로 조정을 보여왔지만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대 중국 수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8 월 중 후반 9 일 연속 상승 요인 중 하나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중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늘부터 열리는 하계 세계 경제포럼에서 개막식 연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 지 주목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지표 둔화

뉴욕연은 지수는 전월(25.6)과 예상치(22.0)를 하회한 19.0 으로 발표되었다. 최근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에서 뉴욕연은은 기업들이 관세 발효 여파로 사업하기 힘들다고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예견된 발표였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17.1→16.5), 출하지수(25.7→14.3)은 하락 했다. 그러나 재고지수(0.0→8.9), 가격지불지수(45.2→46.3) 등은 증가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엔화 강세

국제유가는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락 했다. 커들러 위원장이 대 중국 관세 발효를 언급하자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EIA 는 시추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10 월 세일오일 산유량이 하루 7.9 만 배럴 증가한 759.4 만 배럴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9 월 세일오일 산유량이 9.3 만 배럴 증가한 752.2 만 배럴 전망치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했다.

달러화는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엔화 강세 및 이탈리아 우려 완화에 따른 유로화 강세 여파로 여타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GDP 대비 재정적자를 현 수준에서 유지 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이탈리아 금융 리스크 완화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발효를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 했다. 한편, 파운드화는 EU 가 영국과의 브렉시트 관련해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주가지수 하락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뉴욕연은 지수도 예상을 하회하는 등 미국 제조업지표 둔화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약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 격화 여파로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 가격은 0.20%, 철근도 0.78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8.91	-0.12	+2.03	Dollar Index	94.494	-0.46	-0.69
브렌트유	78.05	-0.05	+0.88	EUR/USD	1.1685	+0.52	+0.78
금	1,205.80	+0.39	+0.50	USD/JPY	111.82	-0.21	+0.62
은	14,223	+0.57	+0.30	GBP/USD	1.3159	+0.70	+1.02
알루미늄	2,032.00	-0.54	-3.01	USD/CHF	0.9619	-0.67	-1.35
전기동	5,945.00	-0.47	+0.59	AUD/USD	0.7178	+0.35	+0.89
아연	2,320.00	-0.60	-2.56	USD/CAD	1.3031	-0.04	-1.01
옥수수	348.00	-1.07	-5.24	USD/BRL	4.1276	-1.09	+1.04
밀	506.25	-1.03	-4.16	USD/CNH	6.8693	-0.08	+0.00
대두	823.50	-0.84	-2.57	USD/KRW	1126.60	+0.90	-0.16
커피	97.30	-2.41	-3.90	USD/KRW NDF 1M	1125.52	+0.38	-0.3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989	-0.74	+5.71	스페인	1.485	+0.20	+3.50
한국	2.325	+1.50	+7.30	포르투갈	1.826	-2.40	-4.80
일본	0.118	휴장	휴장	그리스	4.015	-5.20	-15.80
독일	0.458	+0.80	+5.70	이탈리아	2.843	-13.60	-6.30